



# 제 91 회

9월 14일,

- ... 본회가 주최한 第91 회 ○
- ... 회 發明教室이 지난 ○
- ... 9월 14일 發明장려관 ○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每月 둘째 토요일 午 ○
- ... 後 1時 30分에 開催 ○
- ... 되는 發明教室은 이 ○
- ... 달에도 1백여명이 參 ○
- ... 席하여 盛況을 이루 ○
- ... 었다. 이날 發明教室 ○
- ... 에서는 나라테크닉스 ○

## 보고 듣고 카세트 발명가 나라테크닉스 김현민 전무이사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단추를 누르면 버스번호에 불이 들어오며 음악이 나오는 버스노선 자동안내기를 발명한 나라테크닉스의 김현민 전무이사가 이번에는 보고 듣는 카세트를 발명하여 발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김전무는 이 발명품으로 '89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 우수상, '91 IR 52 장영실상 등 무수한 수상을 하였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흔히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 책을 보면서 테이프를 들어야 하는

이 불편함으로 인해 어학공부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전무도 그중의 한사람.

특히 바쁜 생활속에서도 책을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휴대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어학 공부를 할 수는 없을까를 모색하던 김전무는 자막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오는 보고 듣는 카세트(DISPLAY CASSETTE)를 개발하게 되었다.

89년 2월 개발에 착수한 김전무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팀을 구성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오디오, 컴퓨터, Micom, LCD Module 등 첨단기술의 응용이 필요했

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운 다음, 첨단기술의 습득과 응용이 쉬운 대학원,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부분별 비상근 연구원을 영입했습니다. 그후 7개월여에 걸쳐 주요 공휴일이나 휴일에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취합하여 시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카세트 테이프에 음성신호와 이에 대응하는 문자신호를 전용의 32비트 컴퓨터 레코딩 시스템으로 동시기록한다. 그리고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액정모듈에 마이컴을 장착하여 카세트 플레이어

# 發明教室

## 成功事例 登發表

- 김현민 전무이사의 성공事例 登表에 이
- 어 金現敏 本會 社長
- 이사의 「발명의 창출
- 과 사업에 대한 강
- 의의 共設日 柳稜士
- 의 「産業財産權制度」
- 에 대한 강의와 토론
- 이 있었다. 發明家의
- 成功事例을 김주려
- 紹介한다(柳稜士記)



전면에 부착하면 음성신호가 울리면서 동시에 문자정보가 액정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였다.

보고 듣는 카세트는 휴대용 카세트에 문자화면을 부착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메스컴의 격찬을 받았는데 단순히 소리에 맞춰 문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 순간순차 모아쓰기, 디스플레이 등 학습내용에 따라 효율성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고 보통의 소리보다 빠르게 또는 늦게 문자를 표출시키는 등 학습계층, 내용, 교수법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 듣는 카세트로 지난 7월에 불가리아에서 벌어진 세계 발명품 박람회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등 그 저력을 과시한 김전무는 자기 자신이 버스노선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동안내기를 발명했고, 어학 공부의 불편함 때문

에 보고 듣는 카세트를 발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격언에 들어맞는 증언이 되는 것이다.

김전무는 또 발명에 성공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제품의 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 등 발명품 전시장의 시제품을 관람했을 때 느낀 점은 무척 조악하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제품의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외관이 조악하다면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뜻 손이 가질 않겠지요.』

김전무는 제품의 기능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기능과 외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상품성을 높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기능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한다.

'89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를 통한 일반 공개로 많은

국내외 가전 대기업체들의 상품화 기술제공 요청을 받은 김전무는 삼성전자와 금성사에 5년 기술제공 계약을 하여 로열티를 받고 있다. 또한 광고, 마케팅, 운영자금 등에서 사업추진이 유리한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로의 제품출시를 이루고 있는데 하드웨어인 카세트를 대기업에 생산 이전하고 소프트웨어인 테이프는 나라테크닉스에서 양산, 시판하는 것이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첨단기술을 개발하면 미국이나 일본 등에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있는데 좀더 뛰어난 인재들의 선진기술을 앞설 수 있는 연구노력이 절실합니다.』

40여분에 걸쳐 차분하게 발표한 김전무의 목소리는 작지만 큰 한국인임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